

청소년의 중독예방을 위한 중독예방 핵심역량모형 구축

박현숙 · 정선영

대구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간호과학연구소

Construction of the Addiction Prevention Core Competency Model for Preventing Addictive Behavior in Adolescents

Park, Hyun Sook · Jung, Sun Young

College of Nursing, The Research Institute of Nursing Science,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Daegu, Korea

Purpose: This study was done to provide fundamental data for the development of competency reinforcement programs to prevent addictive behavior in adolescents through the construction and examination of an addiction prevention core competency model. **Methods:** In this study core competencies for preventing addictive behavior in adolescents through competency modeling were identified, and the addiction prevention core competency model was developed. It was validated methodologically. **Results:** Competencies for preventing addictive behavior in adolescents as defined by the addiction prevention core competency model are as follows: positive self-worth, self-control skill, time management skill, reality perception skill, risk coping skill, and positive communication with parents and with peers or social group. After construction, concurrent cross validation of the addiction prevention core competency model showed that this model was appropriate. **Conclusion:** The study results indicate that the addiction prevention core competency model for the prevention of addictive behavior in adolescents through competency modeling can be used as a foundation for an integral approach to enhance adolescent is used as an adjective and prevent addictive behavior. This approach can be a school-centered, cost-efficient strategy which not only reduces addictive behavior in adolescents, but also improves the quality of their resources.

Key words: Adolescent, Addictive behavior, Competency, Model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오늘날 중독(addiction)의 문제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중독의 문제는 개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황폐화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가족, 사회 및 국가 전체에 폐해를 가져올 수 있다. 중

독은 마약류, 니코틴, 알코올, 약물 등과 같은 물질 중독과 인터넷, 도박, 섭식, 쇼핑, 성, 성형, 핸드폰 등과 같은 행동 중독이 있다(Kim, 2007). 물질 중독과 행동 중독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신체적, 정신적 문제를 일으키며, 중독자 자신뿐 아니라 가족과 사회전반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Yoon, 2010). 특히, 청소년기는 충동적 행동을 조절하는 전-전두엽피질과 세로토닌 체계의 미숙으로 인해 다른 연령층에 비해 중독에 취약하고(Chambers & Potenza, 2003; Gut-

주요어: 청소년, 중독행동, 역량, 모형

*본 논문은 2011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NRF-2011-0014636).

*This study was supported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fund in 2011 (NRF-2011-0014636).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Jung, Sun Young

College of Nursing,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3056-6 Daemyeong 4-dong, Nam-gu, Daegu 705-718, Korea

Tel: +82-53-650-4977 Fax: +82-53-650-4392 E-mail: jungsy@cu.ac.kr

투고일: 2013년 8월 7일 심사외뢰일: 2013년 8월 21일 게재확정일: 2013년 10월 18일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Derivs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d/4.0>) If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and retained without any modification or reproduction, it can be used and re-distributed in any format and medium.

man, 2006), 하나의 중독에 노출 되면 쉽게 다른 중독에 이환되어 복합 중독(cross-addiction)으로 나아갈 수 있다(Coombs, 2004). 청소년의 이러한 중독의 문제는 청소년 자신의 건강과 사회성을 해칠 뿐만 아니라 타인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으므로(You, 2002), 중독예방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까지 청소년의 중독예방을 위한 접근을 살펴보면 주로 인터넷 중독, 휴대폰 중독, 게임 중독 등과 같은 특정 중독을 중심으로 접근해 왔으므로(Yoon), 잠재된 중독 문제가 배제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특정 중독 중심의 접근으로 올 수 있는 제한점과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보다 새로운 접근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최근 물질 중독과 행동 중독의 유사점에 주목하여, 통합적으로 중독을 보고자 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Coombs, 2004; Kim, 2007; Yoon, 2010). 물질 중독과 행동 중독은 서로 관련성이 있으며(Ledgerwood & Downey, 2002), 높은 동반이환율(co-morbidity)을 가지고 있다(Hagedorn, 2009). 모든 중독행동은 각 행동을 통해 얻는 욕구의 충족은 유사한 심리 구조를 가진다(Kim). 즉, 행동을 하기 전에는 신체적, 정서적 각성이 유발되는 시기가 있고, 행동 중에는 쾌락이나 안심을 느끼며, 행동 후에는 각성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후회와 죄책감이 뒤따라 나오는 일련의 과정을 거친다(Kim). 또한, 중독 발달의 초기단계에 충동성(impulsivity)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행동의 유지에 강박성(compulsivity)이 관여한다(Hollander & Allen, 2006). 그리고 모든 중독은 조기에 관리를 하지 않으면 만성적으로 진행되며, 하나의 중독을 해결하더라도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않으면 다른 중독으로 이환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Gutman, 2006).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중독에 대한 조기 개입이 필요하며, 중독 간의 유사한 심리 구조와 특성을 고려한 통합적 접근 가능하다(Kim; Yoon) 물질 중독과 행동 중독을 통합적으로 접근한 연구가 부족하다.

청소년 중독예방을 위한 통합적 접근을 고려한 청소년 중독예방을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청소년의 중독예방 핵심역량모형 구축을 기반으로 할 수 있다. 이러한 접근 방안은 청소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의 병리적 증상이나 부적응 상태에 관한 학문적, 사회적 관심을 청소년의 발달과 적응에 대한 관심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긍정심리학과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Seligman, Steen, Park, & Peterson, 2005). 긍정심리학에서의 청소년 중독예방을 위한 접근은 청소년이 위험요인에 노출되었다 하더라도 위험요인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역량의 강화가 핵심적인 접근 방안임을 강조하고 있다(Guerra & Bradshaw, 2008). 역량이란 삶에서의 어떠한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이용되거나 소유하고 있는 개인의 잠재적인 특성(Kim, 2006)이며, 이들 수많은 역량요소들 가운데 발

전이나 성과 달성에 결정적 기여를 하는 역량이 핵심역량이다(Lee, 2009). 핵심역량과 청소년의 물질남용의 통합적 접근에 관한 연구(Haegerich & Tolan, 2008) 등은 핵심역량 기반 접근 방안의 가능성을 뒷받침해주고 있으나 현재 청소년의 핵심역량 개발에 대한 경험적인 연구가 부분적으로 진행된 상태이다.

청소년의 중독예방 핵심역량 모형 구축을 위한 방법으로 역량모델링(competency modeling)을 이용할 수 있다(Lee, 2009). 이는 청소년 중독예방을 위해 필요한 역량을 효과적으로 규명하고, 일목요연하게 보여주는 지도(road map)를 완성하는 과정이다(Kim, 2006). 기존의 역량모델링 방법은 비교적 단축형이 많았고, 연구의 패턴에 따라서 변형을 많이 하였으며, 그러한 과정 중에 중요한 역량을 간과할 가능성이 있고, 정보의 완전성이나 타당성 면에서 다소 뒤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Spencer & Spencer, 2005). 따라서, 선행 연구 검토, 대상자의 행동사건 인터뷰, 전문가 델파이, 테마분석을 토대로 잠재적 역량모형을 도출하고, 이후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역량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여 동시적 구성타당도와 교차타당도를 검증하는 고전적인 접근 역량모델링을 이용할 때 다소 시간이 소요되어도 엄격한 절차를 통하므로(Lee; Spencer & Spencer) 청소년 중독예방을 위한 보다 타당도 높은 역량이 도출 될 수 있다.

청소년기의 행동은 다양한 요인들과 관련이 있으므로 청소년 중독예방을 위한 핵심역량 분석은 다체계적 관점(multi-system perspective)을 고려해야 하며(Haugaard, 2001), 한 가지 차원보다는 다차원적인 접근이 효과적일 수 있다(Chen, 2004). Henggeler (1982)의 가족-생태 체계이론(family-ecological systems theory)은 인간 발달에 관한 생태학적 틀을 근거로 개발되었으며, 청소년의 중독핵심역량 분석의 이론적 근거가 될 수 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청소년은 여러 개의 체계와 하위체계에 속해 있고, 자신이 속한 체계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다른 체계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다(Henggeler). 이러한 체계 중 청소년에게 가장 영향력이 있는 체계는 가족체계이고, 이외에 친구집단, 학교 및 이웃을 포함하는 지역사회 체계를 고려해야 한다. 청소년 중독예방을 위한 통찰력 있는 접근을 위해서는 이러한 다체계적 관점을 고려하는 것이 핵심 전략이 될 수 있으므로(Kim, 2007), 청소년 중독 예방을 위한 통찰력 있는 접근으로 다체계적 관점을 고려한 역량 분석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자는 역량모델링을 이용하여 다체계적 관점에서 청소년의 중독행동 예방을 위한 중독예방 핵심역량모형을 구축하고, 구축된 역량모형의 타당성 검증을 통해 역량모형 기반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시도는 청소년의 중독행동 감소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자원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비용효과적인 청소년 전략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역량모델링을 통해 청소년 중독행동 예방을 위한 중독예방 핵심역량모형을 구축하고 검증하여, 청소년의 중독행동 예방과 역량강화를 위한 통합적 접근의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 중독행동 예방을 위한 역량을 파악하여, 잠재적 역량모형을 구축한다.

둘째, 청소년 중독행동 예방을 위한 역량모형의 타당도를 검증하여 모형을 확정한다.

1) 잠재적 역량모형에 의해 정의된 중독예방 핵심역량 측정도구 개발을 통해 잠재적 모형의 타당도를 검증한다.

2) 개발된 도구로 동시적 구성타당도와 동시적 교차타당도 검정을 통해 최종 모형을 확정한다.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역량모델링을 통해 청소년 중독행동 예방을 위한 중독예방 핵심역량모형을 구축하는 방법론적 연구이다.

2. 연구 대상자

본 연구는 일 대학병원 Institutional Review Board의 승인(No. CR-11-084-PRO-001-R)을 받았으며, 연구 대상자는 역량모델 개발 단계에 따라 나누어진다. 각 단계별 연구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 정보의 비밀유지, 참여의 자발성, 연구에 참여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점과 문제점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연구에 참여하기를 원하지 않을 때 그만 둘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또한, 자료 수집은 연구 목적에만 이용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서면동의를 받았으며, 감사의 표시로 소정의 선물(학용품)을 제공하였다.

첫째, 본 연구에서 중독행동 예방을 위한 역량을 파악하고 잠재적 역량모형을 구축하기 위하여 행동사건 인터뷰를 할 때 준거 집단의 크기를 최소한 12명의 우수 집단과 8명의 일반 집단이 필요하므로(Spencer & Spencer, 2005), 2011년 7월 30일부터 2011년 8월 4일까지 2개의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우수 청소년 12명, 일반 청소년 8명을 대상으로 자료 수집을 실시하였다. 이는 중독행동의 통합적 접근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행동지표를 파악하는 것보다 여러 중독행동의 통합적 접근에서의 여러 가지 중독과 강박행동의 공통적

성격적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에 대한 대표적인 성격적 특성이 중독성으로 들 수 있다(Park & Jung, 2011b). 따라서, Lee (1997)의 한국판 Eysenck 성격 검사의 중독성 도구를 바탕으로 타당도 검증된 Park과 Jung의 중독성 위험 정도에 따라 우수 집단, 일반 집단, 중독성 위험집단, 중독성 집단의 네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청소년이 목격하거나 경험가능한 중독행동이 노출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강박성, 취약성, 충동성 등의 속성을 포함한 중독성(Lee)이 가장 낮은 집단이 우수집단이었고, 중독성 점수가 평균인 집단이 일반 집단이었다(Park & Jung).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Park과 Jung의 ROC 곡선으로 타당성 검증하여 분류한 우수 집단의 청소년을 우수 청소년으로, 평균집단에 속하는 청소년을 일반 청소년으로 분류하였다.

둘째, 본 연구에서 잠재적 역량모형에 의해 정의된 역량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 개발을 위해 2011년 11월 10일부터 12월 14일까지 지역 분포를 고려한 8개의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을 표본으로 추출하였다. 요인 분석을 위한 표본 수는 일반적으로 변수의 4-5배 정도가 바람직하고, 문항분석을 위한 표본 수는 문항 수의 2-10배가 이상적임을 고려하여(Ryu, 2006), 탈락률을 감안한 870명을 대상으로 질문지를 배부하여 자료 수집을 실시하였고, 최종 861명(99.0%)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대상자는 중학교 1학년 140명(16.2%), 중학교 2학년 132명(15.3%), 중학교 3학년 133명(15.4%)이었고, 고등학교 1학년 152명(17.7%), 고등학교 2학년 156명(18.1%), 고등학교 3학년 148명(17.3%), 남학생이 469명(54.5%), 여학생이 392명(45.5%)이었다.

셋째, 본 연구에서 구축된 역량모형의 동시적 구성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도구개발을 위해 선정된 첫 번째 대상자인 제 1준거표본을 대상으로 한 것과 동일한 속성의 대상자 집단을 제 2준거표본으로 삼아야 하므로(Spencer & Spencer, 2005), 2012년 2월 4일부터 2월 7일까지 지역 분포를 고려한 4개의 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청소년을 표본으로 추출하였다. 교육 현장에서 수행하는 조사연구 시 표본의 크기를 400명 정도로 선정할 경우 모집단을 추정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으므로(Ryu, 2006) 탈락률을 감안하여 440명을 대상으로 질문지를 배부하여 자료 수집을 실시하였다. 제 2준거표본의 우수 청소년은 169명이고, 일반 청소년은 89명이었다. 제 2준거표본의 대상자는 중학교 1학년 40명(15.5%), 중학교 2학년 38명(14.7%), 중학교 3학년 36명(14.0%), 고등학교 1학년 49명(19.0%), 고등학교 2학년 47명(18.2%), 고등학교 3학년 48명(18.6%)이었고, 남학생이 118명(45.7%), 여학생이 140명(54.3%)이었다.

넷째, 본 연구에서 구축된 역량모형의 동시적 교차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행동사건 인터뷰한 첫 번째 대상자인 제 1준거표본을 대상으로 한 것과 동일한 속성의 새로운 준거 집단에서 동일한 크기의 대상자 수를 표본으로 제 2준거표본으로 삼아야 하

므로(Spencer & Spencer, 2005), 2개의 중·고등학교의 우수 청소년 12명, 일반 청소년 8명을 대상으로 자료 수집을 하였다. 2012년 2월 25일부터 2012년 2월 27일까지 우수 청소년 12명, 일반 청소년 8명을 대상으로 자료 수집을 실시하였다.

3. 역량모형 구축과정

탁월한 사람들의 개인특성을 추출하고, 우수자를 대상으로 행동사건 인터뷰를 실시하여 우수자에게만 있는 역량과 공통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역량을 도출하여 역량모형을 구성하는 방법(Spencer & Spencer, 2005)인 고전적 연구의 단계로 역량모델링을 진행하였다.

1) 잠재적 역량모형 구축

(1) 선행 연구 검토 및 분석

본 연구에서는 역량 도출과 근거모색을 위해 국내외 검색 사이트를 이용하여, 최근 10년 간의 문헌을 탐색하였다. 청소년 중독과 보호요인 문헌 63편과 청소년과 역량을 주제로 한 문헌 21편, 역량 모델링을 주제로 한 문헌 18편, 총 102편의 연구들을 중심으로 심층 분석을 통해 청소년 중독행동을 예방하기 위한 역량을 Henggeler (1982)의 가족-생태 체계이론을 근거로 다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역량모형의 기초를 마련하였다.

(2) 행동사건 인터뷰 실시

본 연구에서는 조사 대상인 청소년이 목격하거나 경험한 중독행동에 초점을 두고 청소년의 중독행동과 관련사건을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언급하게 하여 청소년의 중독행동 예방에 필요한 역량 파악을 시도하였다. 역량도출을 위해서는 문제 상황을 극복한 대상자가 아닌 우수 집단과 일반 집단의 역량을 도출해야 한다(Spencer & Spencer, 2005). 연구자는 대상자의 동의를 구한 후 행동사건 인터뷰 과정을 녹음하였으며, 녹음 결과를 문서화하였다.

(3) 테마분석(thematic analysis)

본 연구에서는 행동사건 인터뷰를 통해 조사된 데이터에 의미를 부여하여 잠재적 역량을 규명하기 위해 테마분석을 실시하였다. 행동사건 인터뷰를 실시했던 면접자가 개별 분석하여 분석자 노트에 역량 테마를 기록하고, 같은 분석 과정을 반복하였으며, 팀 작업을 통해 규명된 역량 테마를 논의하면서 우수 청소년의 역량 테마를 분류하고, 이후 행동사건 인터뷰 기록지를 토대로 도출된 테마인 역량의 출현 횟수를 역량의 강도로 설정하여 점수화하였다(Spencer & Spencer, 2005).

(4) 전문가 패널을 이용한 Delphi 조사

본 연구에서는 문헌 고찰과 행동사건 인터뷰 후 테마분석을 통하여 조사 분석된 역량의 요소들에 대해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문가 패널을 이용한 Delphi 조사를 실시하였다. 역량모형구축에서 전문가 Delphi를 하는 경우 1차는 개방형으로 역량을 도출하거나 도출된 역량이 있다면 적절성 여부에 대해 개방형으로 질문하여 의견을 도출하고, 이후 수정된 역량에 대해 전문가 Delphi 2차를 통해 적절성 여부를 다시 확인하고, 역량에 대한 용어의 적절성 여부를 개방형으로 질문하여 전문가 의견을 최대한 받아들여 도출할 수 있으므로(Spencer & Spencer, 2005), 본 연구에서는 사전 두 차례의 전문가 Delphi를 개방형으로 역량의 적절성 여부를 확인하고, 역량을 도출하였으며, 추가 수정사항이나 역량 용어에 대한 적절성 여부를 확인하였다. 전문가 패널의 인원은 20명 정도가 적당하므로(Spencer & Spencer),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구 및 중재 경험이 있는 전문가 21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전문가에는 정신과 전문의 4명, 간호학 교수 3명, 정신전문간호사 3명, 임상심리사 5명, 중등학교 사회복지사 2명, 중등학교 담임교사 4명으로 구성되었다.

(5) 잠재적 역량 모형 구축

선행 연구 검토 및 분석, 행동사건 인터뷰, 테마분석, 전문가 패널을 이용한 Delphi 조사 결과로 중독예방 핵심역량 모형을 잠재적으로 구축하였다.

2) 역량모형의 타당도 검증 및 모형 확정

(1) 잠재적 역량모형에 의해 정의된 중독예방 핵심역량 도구개발을 통한 모형의 타당도 검증

본 연구에서는 역량모형의 구성타당도 검증의 한 방법(Lee, 2009)으로 '청소년의 중독예방 핵심역량 척도' 개발을 위해 역량모형에 의해 정의된 역량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을 도출하여, 내용타당도, 구성타당도 및 준거타당도를 검증하였으며, 신뢰도 검정을 실시하였다.

(2) 역량모형의 동시적 구성타당도 검증

본 연구에서 구축된 역량모형의 동시적 구성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개발된 도구를 이용하여 제 1준거표본과 동일한 환경에 있는 대상자인 제 2준거표본 중 우수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 간에 역량의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였다.

(3) 역량모형의 동시적 교차타당도 검증

본 연구에서는 행동사건 인터뷰를 한 제 1준거표본과 동일한 환경에 있는 대상자를 제 2준거표본에서 행동사건 인터뷰를 재실시

하고, 이를 통해 테마분석을 다시 하여 두 역량이 동일한지를 검정하였다.

(4) 청소년 중독예방 핵심역량 모형 확정

Henggeler (1982)의 다체계적 관점을 고려하여 검정된 역량을 보기 쉽게 도식화하여 역량의 정의와 함께 최종 중독예방 핵심역량 모형으로 확정하였다.

4. 연구 도구

1) 중독성

중독성은 Lee (1997)가 한국에서 표준화한 Eysenck 성격 검사의 하위 척도인 중독성 19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구성하였으나 청소년에게도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도구이며, 중독성이 강한 사람은 위기의식이 강하고 대인관계에서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람으로 약물이나 행동 중독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Lee). '예' 1점, '아니오' 0점으로 측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중독성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개발당시 신뢰도 Cronbach's $\alpha = .76$ 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6$ 이었다.

2) 충동성

충동성은 Lee (1994)의 한국판 충동성 검사 23개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청소년에게 사용하기 적합하며 최저 1점에서 최고 4점의 4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충동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Lee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alpha = .75$ 이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 .80$ 이었다.

5.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PC WIN 19.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 중독행동 예방을 위한 잠재적 역량모형 구축

1) 대상자의 행동사건 인터뷰는 테마분석을 실시하였고, 빈도로 수량화하여 Mann-Whitney U test로 분석하였다.

둘째, 청소년 중독행동 예방을 위한 역량모형의 타당도 검정

1) '청소년의 중독예방 핵심역량척도'의 구성타당도 검정으로 문항 분석과 Varimax 회전을 이용한 주성분 분석의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고,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Cronbach's α 를 산출하였다.

2) 역량모형의 동시적 구성타당도 검정을 위하여 개발된 '청소년의 중독예방 핵심역량척도'로 우수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역량정도의 차이를 t-test로 검정하였다.

3) 역량모형의 동시적 교차타당성 검정을 위하여 제 2의 준거표본을 행동사건 인터뷰를 실시하여 테마분석을 하였고, 빈도로 수량화하여 Mann-Whitney U test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1. 청소년의 중독예방을 위한 잠재적 중독예방 핵심역량모형 구축

1) 선행 연구 검토 및 분석

청소년의 중독예방을 위한 중독예방 핵심역량을 파악하기 위해 Henggeler (1982)의 가족-생태 체계이론을 근거로 다체계적으로 선행 연구를 검토하고 분석한 결과, 청소년 역량의 개인체계 요인으로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자기통제', '시간활용기술', '현실지각기술', '낙관주의', '자기표현기술', '도덕성'이 도출되었다. 첫째, 청소년의 낮은 자아존중감은 정신건강, 약물남용, 우울, 범죄, 자살 및 기타 위험행동과 관련이 있으며(Guerra & Bradshaw, 2008), 미디어나 물질 등에 대리만족을 하게 되며 몰입할 가능성이 높다(Coombs, 2004). 둘째, 문제해결을 하는 자기 조절자로서의 인간은 여러 가지 대안을 생성하고 이것들 중 가능한 대안을 선택하게 되므로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들은 긍정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나, 자기효능감이 낮은 사람들은 다른 방법을 선택하게 되어 인터넷이나 물질중독에 빠지게 된다(Ha & Lee, 2005). 셋째, 자기통제는 중독의 가장 강력한 영향변인으로 인식될 뿐만 아니라(Choi, Choi, & Ahn, 2011) 미디어 이용 전반에 걸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Choi et al.). 넷째, 시간활용기술은 청소년의 중독정도가 개선에 도움이 되었다(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2008). 다섯째, 현실감 인식 수준이 게임, 인터넷, 핸드폰 등 각종 미디어 중독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Hwang & Park, 2008). 여섯째, 낙관적인 청소년일수록 주관적 행복감이 높고, 스트레스를 경험할 때 보다 중독이나 위험행동을 잘 극복하도록 한다(Ha & Lee). 일곱째, 자기표현기술을 표현하는 대화 개방성 특성의 커뮤니케이션 방법을 사용하는 청소년이 휴대폰 중독 정도가 낮았다(Guerra & Bradshaw).

Henggeler (1982)의 가족-생태 체계이론에서 개인은 가족체계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게 된다는 근거를 바탕으로 하여 청소년 역량의 가족체계 요인으로 '부모-자녀 애착', '부모-자녀 의사소통'이 도출되었다. 첫째, 부모-자녀 애착은 청소년의 경우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가지고(Song, Thompson, & Ferrer, 2009), 가족 내에서 고립감을 느끼는 자녀들은 자신을 긍정적으로 지지하지 못하고 인터넷 중독이나 물질중독자가 될 수 있다(Freeman & Brown, 2001). 둘째, 부모-자녀 애착을 긍정적으로 이끌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부모-

자녀 의사소통이며(Choi et al., 2011), 청소년의 경우 부모-자녀 의사소통이 휴대폰 중독, 인터넷 중독, 게임 중독 등의 행동중독에 영향을 미친다(Choi et al.).

Henggeler (1982)는 주변환경체계 중 청소년 또래와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였으며, 다른 환경적 차원의 체계 요인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를 토대로 청소년 역량의 주변 환경체계 요인으로 '학생 교사의 관계형성기술', '또래 및 사회 애착', '또래 간 의사소통'이 도출되었다. 첫째, 학생 교사의 관계형성술과 교사의 사회적 지지는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Freeman & Brown, 2001). 또한, 청소년은 청소년기 또래 관계의 독특한 특성으로서 부모의 일방적인 애착 관계에서 벗어나 부모와 또래를 동일하게 주요 애착 대상으로 생각하고, 애착을 형성하게 된다(Freeman & Brown; Henggeler). 둘째, 청소년기는 또래 집단과의 관계가 깊어갈수록 또래들로부터 더 많은 영향을 받게 되고(Henggeler), 또래의 행동을 모방하게 되므로, 어느 또래 집단과 관계를 갖느냐에 따라서 비행과 중독에 가담하는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Freeman & Brown; Rankin & Quane, 2002).

따라서, 각 체계별로 중독행동과 상관이 높고, 유의한 예측인자이며, 유사 개념을 포괄할 수 있는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자기통제, 시간활용기술, 현실지각기술, 낙관주의 자기표현기술, 도덕성, 부모-자녀 애착, 부모-자녀 의사소통, 학교교사의 관계형성술, 또래 및 사회 애착, 또래 간 의사소통이 체계별 핵심 역량으로 도출되었다.

2) 행동사건 인터뷰의 테마분석 결과

행동사건 인터뷰의 테마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수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 간에 중독예방 역량의 강도는 자아존중감($z=4.99, p=.003$), 자기효능감($z=5.16, p=.002$), 자기통제($z=5.38, p<.001$), 시간활용기술($z=4.85, p=.003$), 현실지각기술($z=5.24, p<.001$), 부모-자녀 애착($z=4.27, p=.003$), 부모-자녀 의사소통($z=5.98, p<.001$), 또래 및 사회 애착($z=4.11, p=.030$), 또래 간 의사소통($z=4.15, p=.023$)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낙관주의, 자기표현기술, 도덕성 및 학생교사의 관계형성술에서는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선행 연구와 행동사건 인터뷰의 테마분석 결과 청소년 중독예방을 위한 역량으로 개인체계에서는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자기통제, 시간활용기술 및 현실지각기술, 가족체계에서는 부모-자녀 애착과 부모-자녀 의사소통, 주변환경체계에서는 또래 및 사회 애착과 또래 간 의사소통이 도출되었다.

3) 전문가 패널을 이용한 Delphi 결과

Henggeler (1982)의 가족-생태 체계이론을 토대로 사전에 범주화

한 역량 항목에 대하여 전문가들의 의견제시를 요청하고 역량 항목의 적절성에 대해 1차 설문을 한 결과, 역량 항목이 모두 적절하다고 의견일치를 보여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였으며, 추가되어야 할 항목으로 '위기 대처능력'을 제시하는 전문가가 5명이 있어서 이를 추가하였다. 다음으로 각 항목의 정의와 명칭의 적절성에 대해 2차 설문을 실시한 결과 '시간활용기술'을 역량의 구성요소 중 동기과 가치의 요소를 포함하는 '시간관리기술'로, '또래 및 사회 애착'을 역량의 구성요소 중 기술의 요소를 포함하는 '또래 및 사회 지지'로 수정하였다.

4) 잠재적 중독예방 핵심역량 모형구축

선행 연구, 행동사건인터뷰, 테마분석 및 전문가 패널 Delphi 결과를 토대로 잠재적 중독예방 핵심역량 모형이 구축되었다. 청소년 중독예방을 위한 핵심역량으로 개인체계에서는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자기통제, 시간관리기술, 현실지각기술 및 위기 대처능력, 가족체계에서는 부모-자녀 애착과 부모-자녀 의사소통, 주변환경체계에서는 또래 및 사회 지지와 또래 간 의사소통이 도출되어 잠재적 중독예방 핵심역량 모형으로 도출되었다.

2. 청소년의 중독예방 핵심역량 모형타당도 검정 및 모형 확정

1) 잠재적 역량모형에 의해 정의된 중독예방 핵심역량 도구개발을 통한 모형의 타당도 검정

(1) 1차 예비도구 작성

선행 연구와 행동사건 인터뷰 내용으로부터 85개의 진술문을 수집하였고, 이들을 개념적 기틀의 하부 요인별로 분류하였다. 이때 연구자들은 정기적인 모임에서 토론하고, 합의하는 과정을 거쳤다. 각 문항에 대한 검토는 청소년 중독행동을 예방하기 위한 역량을 반영하는 적절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중복되지 않는지, 적절한 용어를 사용했는지, 애매한 표현은 없는지, 어법은 정확한 지와 개념적 기틀의 하부 요인에 부합되는지에 대해 검토하였으며, 문제가 발견되는 경우 합의를 통해 수정·보완하였다. 그 결과, 자아존중감 8문항, 자기효능감 8문항, 자기통제 10문항, 시간관리기술 11문항, 현실지각기술 6문항, 위기 대처능력 7문항, 부모-자녀 애착 9문항, 부모-자녀 의사소통 12문항, 또래 및 사회 지지 9문항, 또래 간 의사소통 5문항, 총 85문항이 선정되었다. 각 문항에 대해 '매우 그렇다' 5점, '그렇다' 4점, '보통이다' 3점, '그렇지 않다' 2점,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을 배정하여 1차 예비도구를 작성하였고, 이를 중등학교에 재학 중인 남자 중학생, 여자 중학생 각 2명을 대상으로 어휘의 난이도, 응답 용이성, 수정이 필요한 부분 등에 대해 기초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응답 용이성은 양호하였고,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와

표현이 애매한 어휘는 적절한 용어로 수정하였다. 본 도구는 Likert 유형의 총화평정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청소년 중독행동 예방을 위한 역량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2) 내용타당도 검정 및 2차 예비도구 작성

1차 예비도구의 각 문항의 내용이 청소년 위험행동을 예방하기 위한 역량을 얼마나 잘 나타내는지를 '전혀 적절하지 않다' 1점, '적절하지 않다' 2점, '적절하다' 3점, '매우 적절하다' 4점으로 응답하도록 하고, 각 문항에 대해 3-4점을 준 전문가의 비율을 계산하여 각 문항에 대한 내용타당도 지수(index of content validation). 80 이상인 문항을 선정하였다. 문항의 적절성에 대해 1차 설문을 한 결과, 타당도 지수는 모두 .80 이상이었으며, 1차 예비도구에 선정되었던 자아존중감 8문항, 자기효능감 8문항, 자기통제 10문항, 시간관리기술 11문항, 현실지각기술 6문항, 중독행동 대처능력 7문항, 부모-자녀 애착 9문항, 부모-자녀 의사소통 12문항, 또래 및 사회 지지 9문항, 또래 간 의사소통 5문항, 총 85문항 모두가 2차 예비도구로 작성되었다.

(3) 2차 예비도구에 대한 구성타당도

2차 예비도구의 구성타당도를 검정하기 위해 일차적으로 문항분석을 통해 표준편차가 1.0 이상인 문항, 문항과 전체 문항 간 상관계수가 .30 미만인 문항을 확인한 결과, 85문항 모두가 이에 해당되었다.

먼저, 자료가 요인 분석이 가능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Kaiser-Meyer-Olkin 검정 결과, .95이었으며,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에서 유의확률이 $p < .001$ 로 본 자료가 요인 분석에 적절함이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요인을 추출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많은 부분을 설명하는 소수의 요인을 추출하기 위해 적합한 주성분 분석(principle component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요인회전방식은 각 요인의 적재값이 높은 변수의 수를 최소화하는(Ryu, 2006) Varimax를 사용하였다. 요인의 수는 요인고유치(eigen value) 1.0 이상인 것과 스크리도표 기울기가 평탄해지는 기점을 기준으로 결정하였다.

일차적으로 85문항을 요인 분석하여 공통성이 .40 이하인 문항을 확인하고 다시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총 7요인으로 확인되었으며, 요인적재값이 .40 이상의 문항을 선택하여 총 6문항을 제거하였다. 최종적으로 79문항을 다시 요인 분석한 결과, 총 7요인으로, 본 연구에서 선행 연구 고찰 및 행동사건 인터뷰 내용분석에서 제시된 요인과 일치하였다. 이들 요인에 의해 설명된 총 분산은 57.31%이었으며, 각 요인과 요인적재값은 .41-.80의 범위였다(Table 1).

(4) 최종도구의 하부요인 명명

요인 1은 부모와의 애착, 헌신, 신뢰, 유대감, 적절한 자율성, 의사소통을 포함하는 부모와의 정서적인 지속적 결속으로서 '부모와의

긍정적 소통'이라 하였다. 요인 2는 보다 크고 장기적 목표 달성을 위해 일시적 충동에 의하거나 즉각적인 만족을 주는 행동을 인내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과 효능감으로서 '자기조절능력'이라 하였다. 요인 3은 또래, 학교 및 주변사회 사람들과 애착, 신뢰, 유대감, 의사소통의 요소를 포함하고 자아개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주변사회 체계와의 관계로 '또래 및 사회와의 긍정적 소통'이라 하였다. 요인 4는 주어진 시간을 질적으로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개인의 긍정적인 능력을 극대화시키는 기술로 '시간관리기술'이라 하였다. 요인 5는 자신이 중요시 하는 과업에 대한 유능감과 그에 대한 성취감을 포함한 개인의 평가인 자아존중감으로 '긍정적 자기가치감'이라 하였다. 요인 6은 어떤 대상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현실이라고 느끼는 감각과 실제 현실 자체를 올바르게 구별할 수 있는 능력으로 '현실지각기술'이라 하였다. 마지막으로 요인 7은 위기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바람직한 행위를 탐색하고 개발하는 능력으로 '위기 대처능력'이라 하였다.

(5) 최종도구의 준거타당도 검정

도구에 대한 준거타당도를 검정하기 위해 청소년의 중독예방 핵심역량, 충동성 및 중독성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청소년의 중독예방 핵심역량은 충동성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역상관이 있었고($r = -.48, p < .001$), 중독예방 핵심역량의 하부요인인 부모와의 긍정적 소통($r = -.41, p < .001$), 자기조절능력($r = -.37, p < .001$), 또래 및 사회와의 긍정적 소통($r = -.50, p < .001$), 시간관리기술($r = -.41, p < .001$), 긍정적 자기가치감($r = -.37, p < .001$), 현실지각기술($r = -.31, p < .001$), 위기 대처능력($r = -.43, p < .001$) 모두가 충동성과 역상관이 있었다. 또한, 청소년의 중독성은 중독예방 핵심역량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역상관이 있었고($r = -.34, p < .001$), 중독예방 핵심역량의 하부요인인 부모와의 긍정적 소통($r = -.35, p < .001$), 자기조절능력($r = -.34, p < .001$), 또래 및 사회와의 긍정적 소통($r = -.35, p < .001$), 시간관리기술($r = -.35, p < .001$), 긍정적 자기가치감($r = -.36, p < .001$), 현실지각기술($r = -.36, p < .001$), 위기 대처능력($r = -.32, p < .001$) 모두가 중독성과 역상관이 있었다.

(6) 최종도구의 신뢰도 검정

본 연구에서 개발된 최종도구는 3개 요인의 총 79문항으로, 내적 일관성 신뢰도 Cronbach's α 는 .97이었다. 요인별로는 요인 1(부모와의 긍정적 소통) .96, 요인 2(자기조절능력) .91, 요인 3(또래 및 사회와의 긍정적 소통) .92, 요인 4(시간관리기술) .91, 요인 5(긍정적 자기가치감) .92, 요인 6(현실지각기술) .81, 요인 7(위기대처능력) .84로 나타났다. 전체 문항 간 상관관계는 .41-.67로 나타났다.

Table 1. Factor Analysis of Final Items

(N=861)

Factors	Items	Factor loading	Eigen values	Accumulative variance (%)
Positive communication with parents (21)	51. My parents praise me.	.68	12.86	15.13
	52. I am living in a happy family.	.67		
	53. My family loves me.	.70		
	54. My parents understand me well.	.49		
	55. My parents please me well.	.77		
	56. I have great time with my parents.	.74		
	57. I depend on my parents when I want to unburden myself.	.72		
	58. My parents let me decide what I want to do by myself.	.68		
	59. I take my parents advice when I worry about something.	.71		
	60. I believe what my parents say.	.74		
	61. My parents respect my feeling.	.74		
	62. I enjoy talking to my parents.	.79		
	63. I am satisfied with the way I and my parents communicate.	.78		
	64. I can talk to my parents when I have a concern.	.80		
	65. I can show my feelings to my parents.	.76		
	66. My parents listen to my words.	.78		
	67. I have no hesitation in showing my opinion to my parents.	.73		
	68. My parents know when I feel bad.	.67		
	69. I can open myself up to my parents.	.74		
	70. My parents answer me frankly when I ask about something.	.74		
	71. My parents help me to understand myself well.	.78		
Self-control skill (17)	9. I usually solve my problems by myself.	.60	10.74	27.76
	10. I try to do my best.	.62		
	11. I have ability to overcome a difficult situation.	.56		
	12. I can live up to my resolutions.	.62		
	13. I have no hesitation to make a resolution.	.55		
	15. Even though it do not go well at the beginning, I try to the best of my ability to do it.	.58		
	16. I think I have good judgement.	.57		
	17. I follow rules well.	.51		
	18. I finish my work if I started it.	.64		
	19. I keep my promise by all means.	.65		
	20. I think before answering or acting.	.54		
	21. I can wait in order to get what I want.	.65		
	22. I can control myself when I lose my mind.	.52		
	23. I don't show my temper when I get a job.	.57		
	24. I tend to concentrate on one thing, not on many works at once.	.62		
	25. I do not show my temper even when my friends oppose my opinion.	.53		
	37. I am not obsess by regret about the past or concern about the future, but do my best for the present.	.48		
Positive communication with peers or social group (11)	72. I believe my friends.	.51	9.50	38.94
	73. My acquaintances like me.	.67		
	74. I have a amicable school life.	.69		
	75. I feel my friends like my family.	.77		
	76. My friends accept me the way I am.	.68		
	77. I am popular with my friends.	.80		
	78. My acquaintances like spending time with me.	.78		
	79. My friends care about my wellbeing.	.73		
	80. I think my classmates take me as an important person in the class.	.72		
	81. I listen to my friends.	.41		
	82. My friends usually follow my opinion.	.64		
Time management skill (11)	26. I don't do something that makes me happy now but would have a bad effect on my future.	.43	5.29	45.16
	27. I make a note of what I have to do.	.74		
	28. I always make a plan and follow it.	.75		
	29. I never put off what I should do today.	.56		
	30. I make a plan for preparing an exam.	.68		
	31. I use my extra time well.	.57		
	32. I study when I study, and play when I play.	.45		
	33. When I make a plan, I know how much time to spend on all the work I have.	.60		
	34. I have a planning time and a self-reflection time every day.	.64		
	35. I try to do the most important work at the best time to work.	.55		
	36. I believe I always have a time to do the important jobs.	.41		

Table 1. Factor Analysis of Final Items (Continued)

(N = 861)

Factors	Items	Factor loading	Eigen values	Accumulative variance (%)
Positive self-worth (7)	1. I think I am happy.	.64	3.78	49.61
	2. I am satisfied with myself.	.70		
	3. I think I have lots of merits.	.61		
	4. I think I am worthwhile.	.56		
	5. I like my usual life style.	.42		
	6. I am satisfied with my appearance.	.54		
	7. I have a positive attitude about my life.	.62		
Reality perception skill (6)	38. I can distinguish between reality and virtuality among surrounding circumstances.	.69	3.47	53.69
	39. I can make a choice among the work I have.	.69		
	40. I can correct the mistake which has been made.	.61		
	41. I know what I have to do, and what I don't.	.70		
	42. I can ask somebody to do something that I cannot do.	.58		
	43. I can use my information in order to do given work.	.66		
Risk coping skill (6)	45. I ask professional help when I need it.	.50	3.07	57.31
	46. When I run into a difficult situation, I try to do more productive work.	.52		
	47. When I run into a difficult situation, I try to correct the way it works.	.54		
	48. When I run into a difficult situation, I ask help of friends, seniors, or someone I respect.	.68		
	49. When I run into a difficult situation, I discuss it with someone in order to figure out the way it would work.	.67		
	50. When I run into a difficult situation, I try harder because I know what I have to do.	.50		

2) 중독예방 핵심역량 모형의 동시적 구성타당도 검증

제 2준거표본에서 우수 청소년의 역량은 평균 281.94점, 표준편차 85.63점이고, 일반 청소년의 역량은 평균 216.80점, 표준편차 12.61점이었다. 두 군의 차이를 t-test로 분석한 결과($t=3.43, p=.035$),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중독예방 핵심역량의 하부요인인 부모와의 긍정적 소통($t=3.51, p=.005$), 자기조절능력($t=2.88, p=.034$), 또래 및 사회와의 긍정적 소통($t=3.43, p=.002$), 시간관리기술($t=3.17, p=.040$), 긍정적 자기가치감($t=2.07, p=.049$), 현실지각기술($t=2.50, p=.020$), 위기 대처능력($t=2.54, p=.018$) 모두가 두 집단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able 2). 따라서, 본 연구의 역량모형에 의해 정의된 역량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도구로 역량모형의 동시적 구성타당도가 검증되었다.

3) 중독예방 핵심역량 모형의 동시적 교차타당성 검증

제 2준거표본의 우수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의 중독예방 역량을 테마분석한 후 그 강도를 차이검정 한 결과, 긍정적 자기가치감($z=5.91, p<.001$), 자기조절능력($z=4.84, p=.002$), 시간관리기술($z=5.14, p<.001$), 현실지각기술($z=5.00, p<.001$), 위기 대처능력($z=5.28, p<.001$), 부모와의 긍정적 소통($z=5.54, p<.001$), 또래 및 사회와의 긍정적 소통($z=4.65, p=.009$)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또한, 행동사건 인터뷰의 제 1준거표본에서와 같이 낙관주의와 도덕성이 역량으로 도출되었지만 두 집단 간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고, 제 1준거표본에서 도출된 자기표현기술, 지각된 부모결혼친밀도 및 학생교사의 관계형성술, 자기표현기술은 제 2준거표본에서는 역량

으로 도출되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도출된 중독예방 핵심역량 모형의 동시적 교차타당성이 검증되었다.

4) 중독예방 핵심역량 모형의 확정

역량모형에 의해 정의된 역량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도구로 청소년의 중독예방 핵심역량 모형의 타당도가 검증되었다. 확정된 중독예방 핵심역량으로 개인체계 역량은 긍정적인 자기가치감, 자기조절능력, 시간관리기술, 현실지각기술 및 위기대처능력이었고, 가족체계 역량은 부모와의 긍정적 소통이었으며, 주변환경체계 역량은 또래 및 사회와의 긍정적 소통이었다(Figure 1).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중독예방을 위한 핵심역량을 제시하기 위해 역량모델링을 통해 중독예방 핵심역량 모형을 구축한 후 모형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도출된 핵심역량에 대해 살펴보면 Henggeler (1982)의 가족-생태 체계이론을 근거로 청소년 개인체계, 가족체계, 주변환경체계로 도출된 것을 알 수 있다. 우선 개인체계에서의 역량은 긍정적 자기가치감, 자기조절능력, 시간관리기술, 현실지각기술 및 위기 대처능력이 도출되었다. 두 번째로 가족체계에서의 역량은 부모와의 긍정적 소통이 도출되었다. 마지막으로 주변 환경체계에서는 또래 및 사회와의 긍정적 소통이 역량으로 도출되었다. 이는 Park과 Jung (2011a)의 청소년 위험행동 예방 역량으로 자기통

Table 2. Competency due to Level of Crisis

(N=258)

Competencies	Addictive personality		t (p)
	Excellent adolescents	Average adolescents	
	M ± SD	M ± SD	
Competency model for preventing adolescents' addictive behavior	281.94 ± 85.63	216.80 ± 12.61	3.43 (.035)
Positive communication with parents	72.47 ± 25.76	65.08 ± 14.28	3.51 (.005)
Self-control skill	57.59 ± 20.45	42.91 ± 8.04	2.88 (.034)
Positive communication with peers or social group	41.94 ± 12.48	30.00 ± 5.98	3.43 (.002)
Time management skill	36.18 ± 12.26	28.83 ± 5.59	3.17 (.040)
Positive self-worth	28.11 ± 9.24	21.75 ± 4.97	2.07 (.049)
Reality perception skill	27.16 ± 1.98	21.42 ± 2.06	2.50 (.020)
Risk coping skill	19.94 ± 8.07	14.40 ± 3.03	2.54 (.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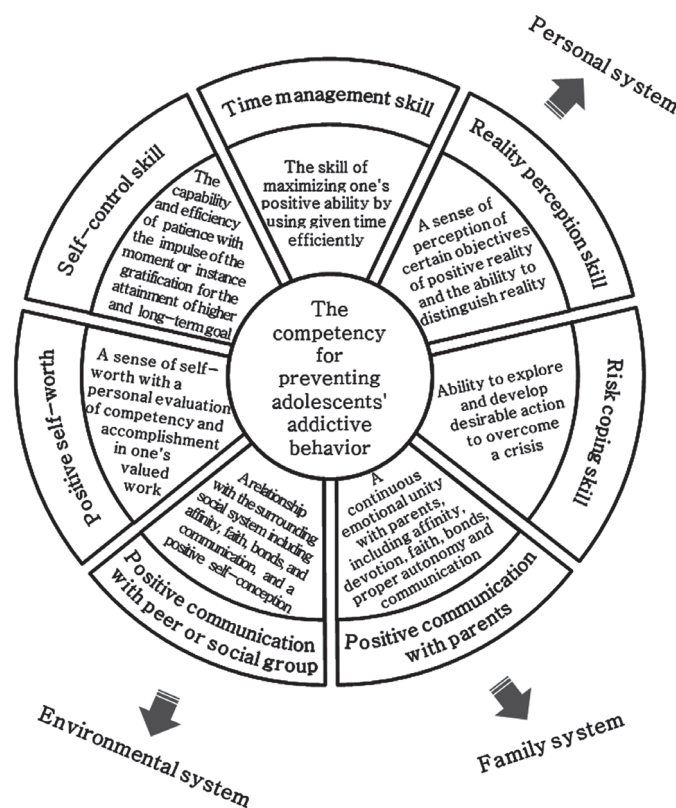


Figure 1. The competency model for preventing adolescents' addictive behavior.

제, 부모와의 긍정적 소통, 긍정적인 또래 유대감이 도출된 것과 유사한 결과이다. 그러나 Park과 Jung의 연구에서 위험행동의 개인 내적인 역량으로 자기통제만 도출된 것과는 다르게 본 연구에서는 중독예방 핵심역량으로 자기통제 외에 4개의 보다 구체화된 역량이 도출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중독행동이 개인의 외적 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는 위험행동보다는 개인의 내적인 역량에 더욱 영향을 받는다(Coombs, 2004)고 볼 수 있으며, 아울러 개인 내적인 자기개념, 특질, 동기, 가치, 기술 등의 역량의 속성(Spencer & Spen-

cer, 2005)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개념적 기틀 작성 시 도출되었던 낙관주의, 자기표현기술, 학생교사의 관계형성기술 등은 사전 테마분석 결과 제외되었는데, 이는 자기표현기술과 학생교사의 관계형성기술은 부모와의 긍정적 소통, 또래 및 사회와의 긍정적 소통 등과 같은 요인이 가지고 있는 소통(Ha & Lee, 2005)이라는 공통적인 속성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청소년 중독예방 핵심역량 중 낙관주의와 도덕성은 Guerra과 Bradshaw (2008)의 연구에서 청소년의 핵심역량으로 도출된 결과와

는 상반되었으나 위험행동 예방 핵심역량을 파악한 Park과 Jung (2011a)의 연구에서도 초기에 도출되었다가 최종문항 선정에서 제외된 것과 유사한 결과이므로 한국 청소년이 낙관주의와 도덕성에 대한 태도에 대한 추후 분석할 필요가 있겠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수행되어온 대부분의 연구에서 청소년 중독행동 예방을 위한 접근방안으로 단일 체계요인 혹은 제한된 수의 체계요인에 초점을 두어왔다. 특히, 학교를 포함한 주변환경체계에 대한 접근을 함께 고려한 연구가 많지 않았으나 본 연구에서는 가족체계 뿐만 아니라 주변환경체계의 핵심역량이 도출되었다. 이는 또래와 학교집단은 청소년의 발달에 매우 중요한 생태적 맥락(Henggeler, 1982)로서, 이 집단 내에서의 또래 관계는 청소년 이후의 사회성, 성격 발달을 연결하는 중요한 고리가 된다는 견해(Freeman & Brown, 2001)와 일관된다. 특히, 청소년기는 또래 집단과의 관계가 깊어갈수록 또래들로부터 더 많은 영향을 받게 되고, 또래의 행동을 모방하게 되므로, 어느 또래 집단과 관계를 갖느냐에 따라서 비행과 중독에 가담하는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Rankin & Quane, 2002). 뿐만 아니라 위험행동 예방을 위한 역량에는 또래와의 긍정적 소통만 포함되었지만 (Park & Jung, 2011a), 본 중독행동 예방 핵심역량에서는 교사를 포함한 주위 사람들 전반의 문항이 선택된 것은 중독예방에 있어서는 주변환경체계를 더욱 포괄적으로 영향을 받고 다루어진 역량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Henggeler의 가족-생태 체계이론을 바탕으로 개인체계, 가족체계 및 주변 환경체계의 다체계적 관점에서 접근한 본 연구의 결과는 단일 차원에서 접근한 기존의 연구보다 청소년 중독행동 예방과 효과적인 간호중재 방안에 대해 보다 충분한 통찰력을 제공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역량모형의 구성타당도 검정을 위해 역량모형에 의해 정의된 역량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였다. 개념적 기틀, 테마분석, 전문가 델파이 등을 거쳐 작성한 청소년의 중독예방 핵심역량 척도 85문항은 문항 분석한 결과 도구에 대한 기여도가 모든 문항에서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요인 분석 결과 고유값 1 이상인 일곱 개 요인이 추출되었고, 요인들은 전체 변량의 57.31%를 설명하였다. 또한, 요인 적재량이 .30 이상인 문항이 총 79문항으로 파악되어 모든 문항이 유의하였다. 각 요인은 역량도출 결과와 동일하게 나왔으며, 도구의 신뢰도 검정에서 Cronbach's α 가 .97이었고, 요인별 신뢰도는 .81-.96의 범위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Cronbach's α 가 .60-.70이면 수용할 만하며, Cronbach's α 가 .80-.90 이상이면 바람직하다는 견해(Ryu, 2006)에 비추어 볼 때 본 연구에서 개발된 중독예방 핵심역량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이를 충족하며, 비교적 높은 신뢰도를 보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도구의 준거타당도 검정 결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어 청소년 중독예방 핵심역량 척도는 적절한 도구임이 검증되었다. 현재까지 우리나라 청소년에게 사용할 수 있는

표준화된 청소년 중독예방 핵심역량 도구가 없었음을 고려할 때 본 연구에서 개발된 도구는 청소년 중독예방을 위한 역량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으며, 신뢰도와 타당도가 높은 도구라고 볼 수 있다.

역량모형타당도 검정을 위한 방법으로 제 2준거표본을 대상으로 우수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의 역량 정도를 비교 분석한 결과, 우수 청소년의 역량은 평균 청소년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어 청소년 역량모형의 동시적 구성타당도가 입증되었다. 또한, 제 2준거표본을 대상으로 테마분석을 재 실시하여 본 역량모형과 동일한 결과를 보였으므로 동시적 교차타당도도 역시 입증되었다. 그러나 추후 연구에서는 우수 청소년이 미래에 실제로 우수한 성과 즉, 중독행동을 하지 않은 정도를 검토하는 예측타당도(Spencer & Spencer, 2005)를 검정할 필요도 있겠다.

본 연구는 청소년의 중독행동 예방을 위한 통합적 접근으로 역량모델링을 통한 청소년 중독예방 핵심역량 모형 구축을 처음으로 시도했다는 점에서 중요성과 의의를 들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일부지역의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므로, 연구의 결과를 청소년 전체로 일반화하는데 제한이 있다. 따라서, 지역분포를 보다 더 고려한 추후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며, 반복 연구를 통해 본 연구에서 파악하지 못한 다양한 역량 요인을 탐색하고, 각 역량간의 인과관계를 포함한 확장된 모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를 기반으로 하여 청소년 중독예방을 위한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통합적으로 적용해야 할 것이다.

결론

본 연구는 고전적이고 표준화된 역량모델링을 통해 청소년의 중독행동 예방을 위한 중독행동 핵심역량모형을 구축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에서 청소년의 중독예방 핵심역량모형이 구축되고 타당성이 검증되었으므로, 이를 통해 청소년의 중독예방을 위한 통합적 접근의 기반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역량모형을 기반으로 하여 우리나라 청소년의 중독예방과 성인기로의 성공적인 이행을 도울 수 있는 역량강화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할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접근은 청소년 중독행동을 감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자원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학교중심의 비용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역량모델링을 통해 청소년의 중독예방을 위한 중독예방 핵심역량모형 구축을 처음으로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중요성과 의의를 들 수 있다.

REFERENCES

Chambers, R. A., & Potenza, M. N. (2003). Neurodevelopment, impulsiv-

- ity, and adolescent gambling. *Journal of Gambling Studies*, 19(1), 53-84. <http://dx.doi.org/10.1023/A:1021275130071>
- Chen, A. C. (2004). *What do we know about adolescent risky sexual behavior: A multi-level environmental approach*.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Washington, Seattle, WA.
- Choi, Y. S., Choi, H. J., & Ahn, Y. J. (2011). The effect of parents' raising attitude, self-control, and peer relationship on adolescents' internet addiction. *Journal of Family Relations*, 15(4), 113-133.
- Coombs, R. H. (2004). *Handbook of addictive disorders: A practical guide to diagnosis and treatment*. Hoboken, NJ: John Wiley & Sons.
- Freeman, H., & Brown, B. B. (2001). Primary attachment to parents and peers during adolescence: Differences by attachment styl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0(6), 653-674. <http://dx.doi.org/10.1023/A:1012200511045>
- Guerra, N. G., & Bradshaw, C. P. (2008). Linking the prevention of problem behaviors and positive youth development: Core competencies for positive youth development and risk prevention. *New Directions for Child and Adolescent Development*, 2008(122), 1-17. <http://dx.doi.org/10.1002/cd.225>
- Gutman, S. A. (2006). Why addiction has a chronic, relapsing course. The neurobiology of addiction: Implications for occupational therapy practice. *Occupational Therapy in Mental Health*, 22(2), 1-29. http://dx.doi.org/10.1300/J004v22n02_0
- Ha, J. H., & Lee, H. K. (2005). The effects of optimism, self-efficacy in the real life, self-efficacy in the cyber-space, hardiness, internet immersion, on adolescents' internet addiction. *The Korea Journal of Counseling*, 6(3), 919-932.
- Haegerich, T. M., & Tolan, P. H. (2008). Core competencies and the prevention of adolescent substance use. *New Directions for Child and Adolescent Development*, 2008(122), 47-60. <http://dx.doi.org/10.1002/cd.228>
- Hagedorn, W. B. (2009). Sexual addiction counseling competencies: Empirically-based tools for preparing clinicians to recognize, assess, and treat sexual addiction. *Sexual Addiction & Compulsivity*, 16(3), 190-209. <http://dx.doi.org/10.1080/10720160903202604>
- Haugaard, J. J. (2001). *Problematic behavior during adolescence*. Boston, MA: McGraw-Hill.
- Henggeler, S. W. (1982). The family-ecological system theory. In S. W. Henggeler (Ed.), *Delinquency and adolescent psychopathology: A family-ecological systems approach* (pp. 1-10). Boston, MA: John Wright.
- Hollander, E., & Allen, A. (2006). Is compulsive buying a real disorder, and is it really compulsive? *The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63(10), 1670-1672. <http://dx.doi.org/10.1176/appi.ajp.163.10.1670>
- Hwang, H. S., & Park, S. B. (2008). The impact of user's psychological experience on online game addiction: Perceived reality and sense of presence. *Journal of Communication Science*, 11(1), 474-510.
- Kim, E. K. (2006). *The development of nursing leadership competency model*.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rea National Defense University, Seoul.
- Kim, K. H. (2007). A way to overcome addiction, the modern dungeon.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12(4), 677-693.
- Ledgerwood, D. M., & Downey, K. K. (2002). Relationship between problem gambling and substance use in a methadone maintenance population. *Addictive Behaviors*, 27(4), 483-491.
- Lee, H. S. (1994). Patterns of impulsiveness. *Journal of Humanities*, 21, 93-104.
- Lee, H. S. (1997). *Korean version Eysenck personality questionnaire*. Seoul: Hakjisa.
- Lee, K. B. (2009). A study of the developmental solutions of youth activities programs in the development of youth capabilities. *Forum for Youth Culture*, 20, 172-212.
-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2008, January). *A study on the trend of internet addiction and legislation* (No. Research 07-15). Seoul: Author.
- Park, H. S., & Jung, S. Y. (2011a). Development of the competency model for prevention of adolescent risk behavior.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41(2), 204-213. <http://dx.doi.org/10.4040/jkan.2011.41.2.204>
- Park, H. S., & Jung, S. Y. (2011b). Validation of addictive personality scale for screening adolesc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20(4), 395-403.
- Rankin, B. H., & Quane, J. M. (2002). Social contexts and urban adolescent outcomes: The interrelated effects of neighborhoods, families, and peers on African-American youth. *Social Problems*, 49(1), 79-100.
- Ryu, C. S. (2006). *SPSS 14.0 for windows* (5th ed.). Seoul: Elite.
- Seligman, M. E., Steen, T. A., Park, N., & Peterson, C. (2005). Positive psychology progress: Empirical validation of interventions. *The American Psychologist*, 60(5), 410-421. <http://dx.doi.org/10.1037/0003-066x.60.5.410>
- Song, H., Thompson, R. A., & Ferrer, E. (2009). Attachment and self-evaluation in Chinese adolescents: Age and gender differences. *Journal of Adolescence*, 32(5), 1267-1286. <http://dx.doi.org/10.1016/j.adolescence.2009.01.001>
- Spencer, L. M., & Spencer, S. M. (2005). *Competence at work: Models for superior performance* (B. M. Min, D. G. Park, J. K. Park & J. C. Jeong, Trans.). Seoul: PSI Consulting Corp.
- Yoon, M. S. (2010). The current situation and developmental direction of Korean addiction service delivery system. *Mental Health & Social Work*, 35, 234-266.
- You, Y. D. (2002). The theoretical implications of the flow model for the development of the addiction counselling program. *The Korea Journal of Youth Counseling*, 10(2), 1-34.